

■ 2025년도 지역예술도약지원(공연예술) 무용 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지역예술도약지원(공연예술) 무용 분야
- 회의일시 : 2025년 5월 16일(금) 10:00~16: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 집 2층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공수, 김요셉, 백현순, 이고은, 최원선

2025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예술도약지원'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의 우수 예술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 이를 국내외 시장으로 연계하여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지역 예술의 창작 및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기초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며, 문화향유층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전국 문화예술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특성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필요를 반영하여, 지역 내 기초예술 분야의 우수 작품 및 활동을 후속·연계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심의 대상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14개 광역문화재단에서 추진한 2024년도에 '공연예술 특화(집중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민간예술단체 중, 각 광역문화재단의 추천을 받은 예술가(단체)였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예술적 수월성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 무용 분야는 총 13건이 접수되었고, 행정결격을 제외하고 우수 사업 12건이 심의 대상이었으며 그중 최종 7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본 심의는 무용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합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심의 기준은 추천작품의 작품성(30%), 사업계획의 타당성(40%), 예산 편성의 타당성(20%), 추천작품의 기대효과(10%)로 구성되었습니다.

심의는 단계적으로 전수검토(예비심의), 대면 인터뷰(본심의), 최종 회의의 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사업 체계에 대한 이해와 심의 절차 숙지를 위해 사전 서면 안내가 제공되었고, 이후 모든 심의위원들이 각 지원 사업에 대해 전수 검토 의견을 작성하고 사전 채점을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약 18일간 모든 지원서류와 제출된 작품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며, 각 사업에 대한 점수를 입력하고 평가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비심을 바탕으로 본심의 단계에서는 각 예술단체와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는 단체별로 15분간 진행되었으며, 단체 대표 또는 실무자가 직접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작품의 발전 방향과 향후 활용 계획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장시간에 걸친 대면 인터뷰 이후에는 최종 회의를 통해 개별 지원서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순수예술 작품부터 대중적 색채가 강한 작품,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유형의 사업들이 혼재되어 있어 심의가 결코 용이하지는 않았으나, 심의위원들은 각 지원서류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으며, 장르별 전문가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과 세밀한 질의응답이 촘촘하게 이어졌습니다.

이번 심의는 지역에서 이미 1차 발표된 바 있는 기발표 작품들을 대상으로, 2차적 레퍼토리화 및 전국·해외 무대로의 진출 등 성장을 위한 창·제작이라는 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작 작품의 예술적 우수성, 발전 계획의 구체성, 예산편성의 타당성, 창의적 확장 가능성, 예술적 성장 잠재력, 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칠 문화적 파급효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살펴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무용 내 세부 분야인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각각의 장르적 특성과 더불어,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로서의 발전 가능성 또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창의적 재도약과 외연 확장이라는 사업의 핵심 취지에 초점을 맞추어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전반적인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 간 의견의 일치 또는 유사성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 외 평가 과정에서도 장르별 특성, 예술적 성장 동향, 지역적 안배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이 활발히 논의되고 반영되었으나, 최종 결과는 심의위원 개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와 대체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산 배분은 각 사업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항목별로 면밀한 검토와 조정을 거쳐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예비 후보 선정에 있어서는 일부 선정 단체의 사업 포기 가능성을 고려해, 차점 단체를 예비 후보로 지정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평가는 국내 각 지역문화의 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역량 있는 예술인들의 현장 활동을 확인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문화 콘텐츠 개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이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창작 작업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전문가 자문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2차 제작비 지원은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나아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창작물로의 성장을 돕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올해가 사업 시행 첫해였던 만큼, 사전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공모와 공연 진행 시기가 다소 늦춰졌으며, 제한적인 지원 규모로 인해 완성도 높은 공연을 올리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모든 심의위원들이 공감하며 유감

을 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들이 보완되어 문화예술과 지역, 그리고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심의위원 일동